



# 사랑의 학교

[이] 에드몬도 데 아미치스 지  
림금산 박정화 역



료녕민족출판사



# 사랑의 학교

[이] 에드문도 데 아미치스 저  
림금산 박정화 역



료녕민족출판사

© 林锦山, 朴贞华 2015

###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爱的教育: 朝鲜文 / (意) 亚米契斯著; 林锦山, 朴贞华译.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2015.12

(小书房·世界经典文库)

ISBN 978-7-5497-1247-2

I. ①爱… II. ①亚… ②林… ③朴… III. ①儿童文学—日记体小说—意大利—近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546.84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15) 第319130号

## 爱的教育

AIDE JIAOYU

---

出版发行者: 辽宁民族出版社

地 址: 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 110003

印 刷 者: 沈阳航空发动机研究所印刷厂

幅 面 尺 寸: 170mm×240mm

印 张: 11

字 数: 180千字

印 数: 1-1500

出 版 时 间: 2015年12月第1版

印 刷 时 间: 2015年12月第1次印刷

责 任 编 辑: 张学林

封 面 设 计: 杜 江

责 任 校 对: 边京爱

---

标准书号: ISBN 978-7-5497-1247-2

定 价: 30.00元

法律顾问: 陈 光

版权专有 侵权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出版社联系调换

网 址: [www.lnmzcs.com](http://www.lnmzcs.com)

举报电话: 024-23284336

邮购电话: 024-23284335

联系电话: 024-23284340

淘宝网店: <http://lnmz2013.taobao.com>

## 머리글

학교에 다닐 때, 나는 언제나 침실에 박혀 책을 읽었다. 고금중외의 책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읽었다. 오늘날 내가 문학창작의 길에 오를수 있는것도 그때 많은 책을 부지런히 읽은 덕분이라.

어떤 책은 일찍 접하지 못한것을 한탄하게 하며 수불석권하게 한다. 그런데 이런 느낌을 주는 책들은 어느 하나 고전명작이 아닌게 없었다. 이런 책들은 시간의 긴 강을 뛰어넘어 세월의 질은 향기를 뿜으며 영원한 빛을 뿌린다. 이런 경전작품을 읽는다는것은 아름다운 문학적향수일뿐만아니라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전명작들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품성을 불러일으키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정신을 선양한다. 《미니서재·세계경전문고》에 수록된 작품들은 바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경전명작들이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는 리상주의를 높이 선양하였다. 작자 니콜라이·오스트롭스끼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강철은 뜨거운 불과 급격한 랭각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야만 더 단단해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지력이 무엇인지, 의지력은 어떤 놀라운 힘으로 곤난과 좌절을 이겨내는지를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툼·소야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호방하고 통쾌한 느낌을 준다. 이 작품은 개구쟁이 톼·소야를 주인공으로 하는 모험소설로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아동문학작품의 하나로 일컬어졌다. 톼은 총명하고 사랑스러우며 천성적으로 용감과 모험정신을 지녔다. 그는 까불기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대담하게 승인할뿐만아니라 용감하게 나서서 위선과 사악을 사정없이 폭로한다. 이런 뚜렷한 성격은 숙명적으로 이 개구쟁이



로 하여금 문학사상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 되게 하였다.

한편 《로인과 바다》는 “사람은 꺾멸될수는 있으나 패배할수는 없다.”는 강한 사나이의 정신으로 무수한 독자들을 정복하고 큰 공명을 일으켰다.

평소의 생활속에서 많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명작을 추천해주며 열독하라 하는데 이는 나를 매우 난감하게 만든다. 명작은 세월의 세례를 받아 그 가치가 뛰어나다는것은 의심할바 없지만 많은 작품들은 아이들을 상대로 한 작품이 아니기에 언어가 비교적 어렵고 언급된 내용도 비교적 복잡하며 이야기도 아이들이 흥미를 갖는 내용이 아니기에 아이들은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미니서재·세계경전문고》는 경전명작을 선정하여 조선족언어전문가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단어나 구절, 이야기줄거리 등에 대해 알심들여 수정번역하였다. 《로인과 바다》는 간결하고 힘있으며 《로빈슨표류기》는 생동하고 진수를 전하며 《톰·소야의 이야기》는 유모적이고 흥미로우며 《셜록홈즈의 탐정기》는 사유의 교전이 빈틈없어 아이들에게 많은 재미와 계시를 줄것이다.

《사랑의 학교》에서는 주인공 엔리코가 일년동안 겪는 학교생활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 국가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기록한 일기형식의 이야기체로 친구, 부모, 이웃과 조국, 민족 지간에 사랑이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친애하는 어린 독자 여러분, 이 총서를 읽으면서 애써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많은것을 얻을수 있을것이다!



목 록

**10월의 이야기** .....001

1. 개학 첫날(17일).....001
2. 우리의 새 선생님(18일) .....003
3. 용감한 로베티(21일).....005
4. 새로 온 친구(22일) .....007
5. 고상한 갈로네(26일).....009
6. 빈민굴의 소년(28일).....011
7. 애국소년(이달의 이야기) .....013

**11월의 이야기** .....016

1. 노비스(7월) .....016
2. 친구 코레티(13일).....019
3. 넬리의 보호자(23일).....023
4. 소년정찰병(이달의 이야기) .....025

**12월의 이야기** .....030

1. 허영심(5일) .....030
2. 눈싸움(16일) .....032
3. 부상당한 로인을 위문(18일) .....035
4. 꼬마필사원(이달의 이야기) .....037
5. 견인불발한 스타르디(28일) .....043



<b>1월의 이야기</b> .....	045
1. 스타르디의 도서관(4일) .....	045
2. 대장쟁이의 아들(5일) .....	047
3. 친구들의 방문(10일).....	050
4. 프란티를 제명(21일).....	052
5. 질투(25일) .....	054
6. 프란티의 어머니(28일).....	056
7. 편지를 배달한 소년고수(이달의 이야기).....	058
<b>2월의 이야기</b> .....	064
1. 장난감기차(10일) .....	064
2. 수감자(16일) .....	067
3. 아버지의 간병인(이달의 이야기) .....	071
4. 대장간(18일) .....	078
<b>3월의 이야기</b> .....	080
1. 시상식(14일) .....	080
2. 말다툼(20일) .....	084
3. 펠루치오와 할머니(이달의 이야기) .....	086
<b>4월의 이야기</b> .....	092
1. 유치원(4일) .....	092
2. 체육시간(5일).....	095
3. 갈로네의 어머니(18일).....	098
4. 용감한 소년(이달의 이야기) .....	101
<b>5월의 이야기</b> .....	105
1. 기형아(5일) .....	105
2. 희생(9일) .....	107



3. 엄마 찾아 6천마일(이달의 이야기) .....	109
4. 여름(24일) .....	136
5. 룡아(28일) .....	138
<b>6월의 이야기</b> .....	145
1. 무더위(16일) .....	145
2. 녀선생님의 죽음(17일) .....	148
3. 고마움(18일) .....	152
4. 난파선(마지막 이달의 이야기) .....	154
<b>7월의 이야기</b> .....	160
1. 시험(4일) .....	160
2. 마지막 시험(7일) .....	163
3. 작별(10일) .....	166



## 10월의 이야기

## 1. 개학 첫날(17일)

오늘은 개학날이다. 시골에서 보낸 몇개월은 꿈처럼 지나갔다. 아침에 어머니가 나와 동생을 데리고 학교에 갔다. 하지만 나는 줄곧 마음속으로 시골에서의 즐겁던 나날을 그리었다.

학교로 가는 길은 사람들로 북적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상점문 앞에서 필기책, 책가방 등 학용품을 사느라 붐비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 학교직원과 경찰아저씨가 열심히 질서를 정리해주고있었다.

학교 대문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쳤다. 돌아보니 3학년때의 선생님이였다. 빨간 곱슬머리에 성격이 락관적인 선생님이였다. 선생님이 나에게 말하였다. “엔리코, 이제 우린 헤어져야 하는구나!”

나는 벌써 이 사실을 알고있었지만 막상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새삼스레 슬퍼졌다.

우리는 붐비는 사람들속을 지나 겨우 학교에 들어섰다. 학교안에도 많은 학부모들이 한손으론 아이를 끌고 한손엔 성적표를 들고 응접실 층계옆에서 붐비고있었다. 응접실은 시끌벅적한것이 마치 극장같았다.

다시 이 응접실을 보게 된 나는 정말 기뻐다. 이 몇년간 매일 교실로 향할 때면 항상 이 응접실을 지나다녔던것이다.

2학년때의 녀선생님이 나를 알아보고 서운한 얼굴로 말하였다. “엔리코, 이젠 2층 교실에서 공부하겠구나. 더는 우리 교실을 지나지 않겠네!”



학부모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인 교장선생님의 머리칼은 전에 비해서 더 흰것 같았다. 동창들은 전에 비해서 더 튼튼해보였다. 금방 1학년생이 된 어떤 꼬마들은 교실로 들어가기 싫어하였다. 당나귀처럼 억지로 끌려들어갔다가는 혼자 또 뛰쳐나왔다. 또 어떤 꼬마들은 고개를 돌렸다가 갑자기 부모가 보이지 않자 아예 울음을 터뜨렸다. 부모들은 다시 돌아가 아이들을 열고 닦치고 하였다. 선생님도 별 방법이 없었다.

우리 동생은 델카티선생님의 반에 편입되었다. 나를 가르칠 선생님은 어떤 분일지 몹시 궁금하였다.

오전 10시, 모두가 교실로 들어갔다. 우리 학년은 학생이 포함 55명이다. 그중 3학년때부터 줄곧 같이 진학한 친구는 열대여섯명밖에 되지 않았다. 항상 1등을 도맡아하는 데로시도 우리 반이 되었다.

나는 다시 3학년때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리워났다. 그 선생님은 종래로 화를 내지 않았고 항상 웃어주는 좋은 친구같은 선생이었다. 아쉽게도 그 선생님의 빨간 곱슬머리를 다시 보기 어렵게 되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다시 슬퍼졌다.

우리는 끝내 지금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새 선생님은 키가 크고 반백의 긴 머리를 하고있었으며 말소리가 우렁차고 잘 웃지 않았다. 선생님이 미간을 찌프리고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뚫어지게 볼 때는 마치 우리 속내를 꿰뚫어보는것만 같았다.

나는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였다. “에잇! 오늘이 첫날이야, 학기를 마칠 때까지는 아직 아홉달이나 남았어! 수업이야, 숙제야, 시험이야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

하학할 때까지 간신히 기다렸다. 나는 나는듯이 어머니곁으로 달려가 손에 키스를 하였다. 어머니가 말하였다. “엔리코, 개학이다, 기운내! 엄마가 항상 널 위해 화이팅해줄게!”

나는 기쁘게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친절하고 자상한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학교가 예전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 2. 우리의 새 선생님(18일)

오늘의 만남이 있고나서 우리는 그 키가 크고 잘 웃지 않는 페르보니선생님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였다.

사실은 이러했다. 오늘은 정식으로 수업하는 첫날이었다. 우리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은 벌써 자리에 앉아있었다. 이때는 수업종 소리가 아직 울리지 않은 때였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르보니선생님!”

선생님이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가끔 지나가다가 얼굴을 들이밀고 인사하는 것이었다. 어떤 학생들은 아예 교실에 들어와서 선생님과 악수를 하고서야 자기네 교실로 뛰어갔다. 학생들 모두 선생님을 좋아하고 올해도 선생님이 자기네를 가르치길 바라는 것 같았다.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며 학생들이 내미는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 학생들이 인사할 때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돌았지만 이마의 주름은 여전히 찌프렸고 얼굴도 굳어있었으며 눈은 창밖의 지붕꼭대기를 바라보고있었다. 마치 학생들의 인사를 받는다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다.

수업종소리가 울렸다. 선생님은 우리더러 지난 학기에 배운 과목을 외워쓰라고 하고는 교단에서 내려와 학생들사이를 오갔다.

한 학생의 얼굴에 빨간 종기가 난 것을 본 그는 그 학생에게 쓰기를 멈추라고 하고는 두손으로 그 학생의 얼굴을 받쳐들고 자세히 살펴 보았다. 그리고는 그 학생의 이마를 짚어보면서 열이 나지 않는가고 물었다. 이때 한 학생이 선생님이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 곁상에 올라서



서 인형을 가지고 장난쳤다. 마침 그때 선생님이 고개를 돌리다가 그 학생을 발견하였다. 그 학생은 인차 결상에서 내려와 고개를 숙이고 곧 내려질 벌을 기다렸다. 그러나 선생님은 손을 학생의 머리에 올려놓고 가볍게 말하였다. “다음엔 이리지 말아요!”

우리가 외워쓰기를 다하자 페르보니선생님은 조용히 우리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굵으면서도 친절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는 옹근 1년을 함께 지내야 한다.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이 학기를 잘 보내도록 하자.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규률을 준수하기 바란다.”

이어 선생님은 약간 격동되었지만 느리게 말하였다. “작년에 나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그이가 떠나시자 나만 홀로 남게 되었다. 나에게 이 세상엔 이미 다른 가족이 없다. 너희들의 에 나에게겐 마음에 걸리는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너희들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도 나를 좋아해주길 바란다! 나는 너희들중의 그 누구에게도 벌을 주고싶지 않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서로 진심으로 대하고 우리 학급을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 힘이 넘치게 하길 바란다! 너희들은 당장 답복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난 너희들이 이미 내가 한 말을 가슴속에 새겼을것이라고 믿는다. 너무너무 고맙다, 얘들아!”

이때 학교 직원이 건너와 수업이 끝날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우리는 모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형을 가지고 장난치던 학생이 교실을 떠나지 않고 천천히 선생님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선생님! 이번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선생님은 학생의 이마에 살짝 키스를 해주며 말하였다. “난 너를 믿는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거라, 예쁜 아가야!”



### 3. 용감한 로베티(21일)

개학하자마자 뜻밖의 일이 발생하였다.

아침에 아버지가 나를 학교에 데려다주었다. 학교로 가는 길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어제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우리에게 한 말을 들려주었다. 학교문앞에는 사람들이 빼곡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급히 학교안으로 뛰여가는것을 보고 아버지가 말하였다. “무슨 일이지? 방금 개학했는데, 엉망이군.”

우리는 겨우 학교안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학교안은 도처에 사람들이였고 널직한 응접실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꽉 차있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구, 불쌍한 로베티!”

사람들속에서 나는 경찰아저씨의 모자와 교장선생님의 번들번들한 정수리를 보았다.

이때 문어구에 높은 모자를 쓴 한 신사가 나타났다.

“의사가 왔다!”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은 그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아버지가 급히 옆에 있는 한 남성에게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거죠?”

“누군가 차에 치였다네요!” 그 남성이 말하자 “다리뼈가 치였다나 봐요!”라고 다른 한 남성이 보충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사람은 2학년의 학생 로베티였다. 아침에 학교로 오는 길에 1학년의 한 꼬마가 갑자기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길 건너편으로 뛰었다. 그러다 발을 잘못 짚어 길에 넘어졌다. 이때 차 한대가 그 꼬마가 넘어져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차가 곧 그 꼬마를 치려는 순간 로베티가 용감하게 뛰어들어 그 꼬마를 구해냈다. 그러나 자신은



다리를 미처 빼내지 못하고 차에 치였다.

“그 애가 바로 포병 대위의 아들이라는구만.”

“제 아빠처럼 용감한 녀석이군!”

어른들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있을 때 한 녀인이 정신없이 달려와 발악하듯 사람들속을 헤집고 들어갔다. 그녀가 바로 로베티의 어머니였다. 또 다른 한 녀성도 달려와 로베티의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다름아닌 로베티가 구원한 그 꼬마의 어머니였다. 두 녀인은 함께 안에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후에 나는 그 방 안에서 전해지는 울부짖음소리를 들었다. “아이구, 로베티야! 내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차 한대가 학교문앞에 멈춰섰다. 교장선생님이 로베티를 안고 방안에서 걸어나왔다. 로베티는 맥없이 머리를 교장 선생님의 어깨에 기대고있었는데 낫색은 창백하고 눈은 감고있었다.

모두가 삼시에 조용해졌다. 로베티 어머니의 슬픈 울음소리만 들려왔다.

학부모, 학생, 선생님 모두가 교장선생님의 품에 안긴 로베티를 보면서 일제히 말하였다. “로베티, 기특한 애야! 넌 참으로 용감하다!” 로베티와 가까이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은 사랑하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손등에 키스를 해주었다.

이때 로베티가 눈을 뜨고 허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 책가방은요?”

구원된 그 꼬마의 어머니가 로베티의 책가방을 들고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내가 들어다주마. 널 대신해 내가 들고 가게 해주렴.” 로베티의 어머니가 꼬마의 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교장선생님이 로베티를 안고 학교문을 나서 조심스럽게 마차에 올랐다. 마차는 점점 사라졌다. 그제야 우리는 묵묵히 교실로 들어갔다.



## 4. 새로 온 친구(22일)

어제 오후, 선생님이 우리에게 로베티의 사적을 들려주고있는데 교장선생님이 문앞에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낫선 한 아이가 서있었다. 그 사내아이는 큰 눈에 눈섭이 짙었고 피부가 아주 검었으며 머리숱도 아주 많았다. 교장선생님은 사내아이를 페르보니선생님에게 맡기며 무엇이라 낮은 목소리로 몇마디 하고는 가버렸다.

선생님은 그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새로운 환경이라 그 사내아이는 좀 긴장해 있었다. 하지만 까맣고 또렷한 눈동자는 호기심에 차서 우리를 보고있었다.

“모두들 기뻐해야 할 일이 생겼다.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한명 늘었다. 이 친구는 칼라브리아에서 왔는데 일부 학생들은 그의 고향에 대해 들어봤으리라 믿는다. 삼림과 산천이 있는 그곳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풍경구인 동시에 이탈리아의 많은 명인들의 출생지이기도 하단다. 칼라브리아의 인민들은 용감하고 충명하며 부지런하단다. 모두가 앞으로 이 친구를 잘 대해주고 따뜻한 배려와 열정적인 도움을 많이 줘서 이 친구로 하여금 이탈리아에서는 어디를 가나 좋은 친구가 있다는것을 느끼게 하길 바란다.”

선생님은 친구를 소개하는 한편 지도에서 칼라브리아의 위치를 찾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어 선생님이 큰 소리로 데로시를 불렀다. “데로시, 이리 나와!”

데로시가 일어나서 새로 온 친구앞으로 다가갔다.

“네가 반장이니 새로 온 이 친구에게 환영사를 해야지! 우리를 대표하여 칼라브리아의 이 친구를 환영해주기 바란다!”



데로시는 선생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보이고는 다가가 그 친구를 꼭 끌어안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넌 환영해!”

새로 온 그 친구도 열렬하게 데로시의 얼굴에 키스를 하였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성을 질렀다.

선생님은 입으로는 “조용, 조용! 수업시간에 박수를 쳐서는 안되지!”라고 하면서도 본인이 더 유쾌하게 웃었다. 이어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말하였다. “애야, 어서 네 자리에 가서 앉아라.”

선생님이 말을 이었다. “모두 내가 방금 한 말을 잘 기억해야 한다. 칼라브리아의 애들이 우리 여기 와서도 고향의 품에 안긴것과 같다는 느낌을 갖게 해야 한다. 너희들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만약 누가 그 사람이 이 지방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업신여긴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국기아래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다!”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새로 온 그 친구에게 어떤 학생은 볼펜을 선물하였고 어떤 학생은 그림엽서를 선물했으며 어떤 학생은 스위스우표를 선물하였다.



## 5. 고상한 갈로네(26일)

학교로 가는 길에 나는 2학년때 나를 가르쳤던 녀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은 나보고 언제 집에 있느냐며 언젠가 한번 찾아오겠다고 하였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등교시간이 좀 늦어졌다. 다행히 페르보니선생님은 아직 오지 않았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학생 서너명이 몰려들어 손에 장애가 있는 크로시라는 아이를 놀리고있는것을 보았다. 그들은 삼각자로 그를 때리고 먹고 남은 밤깍질을 그의 머리에 던지며 “병신” “괴물”이라고 놀렸다.

크로시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서 애원하는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마치도 “날 그만 괴롭혀.”라고 말하는것 같았다.

이러는 크로시를 본 그들은 더욱 신이 나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놀렸다. 크로시는 끝내 분노하였다. 그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었고 온몸은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었다.

이때 개구쟁이면서도 교활한 프란티가 원숭이처럼 길상에 뛰어올라 크로시의 어머니가 남새바구니를 메고 다니는 흉내를 내었다.

크로시의 어머니는 크로시를 데리러 올 때 늘 남새바구니를 메고 학교에 왔었다. 그런데 요새 며칠은 보이지 않았는데 앓는다고 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크로시의 어머니를 보았었기에 프란티가 흉내를 내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크로시가 갑자기 책상우에 놓인 잉크병을 들어 프란티를 향해 뿌렸다. 프란티가 날렵하게 피하자 잉크병은 공교롭게도 방금 교실문에 들어서서 페르보니선생님의 앞가슴에 날아가 맞혔다.

